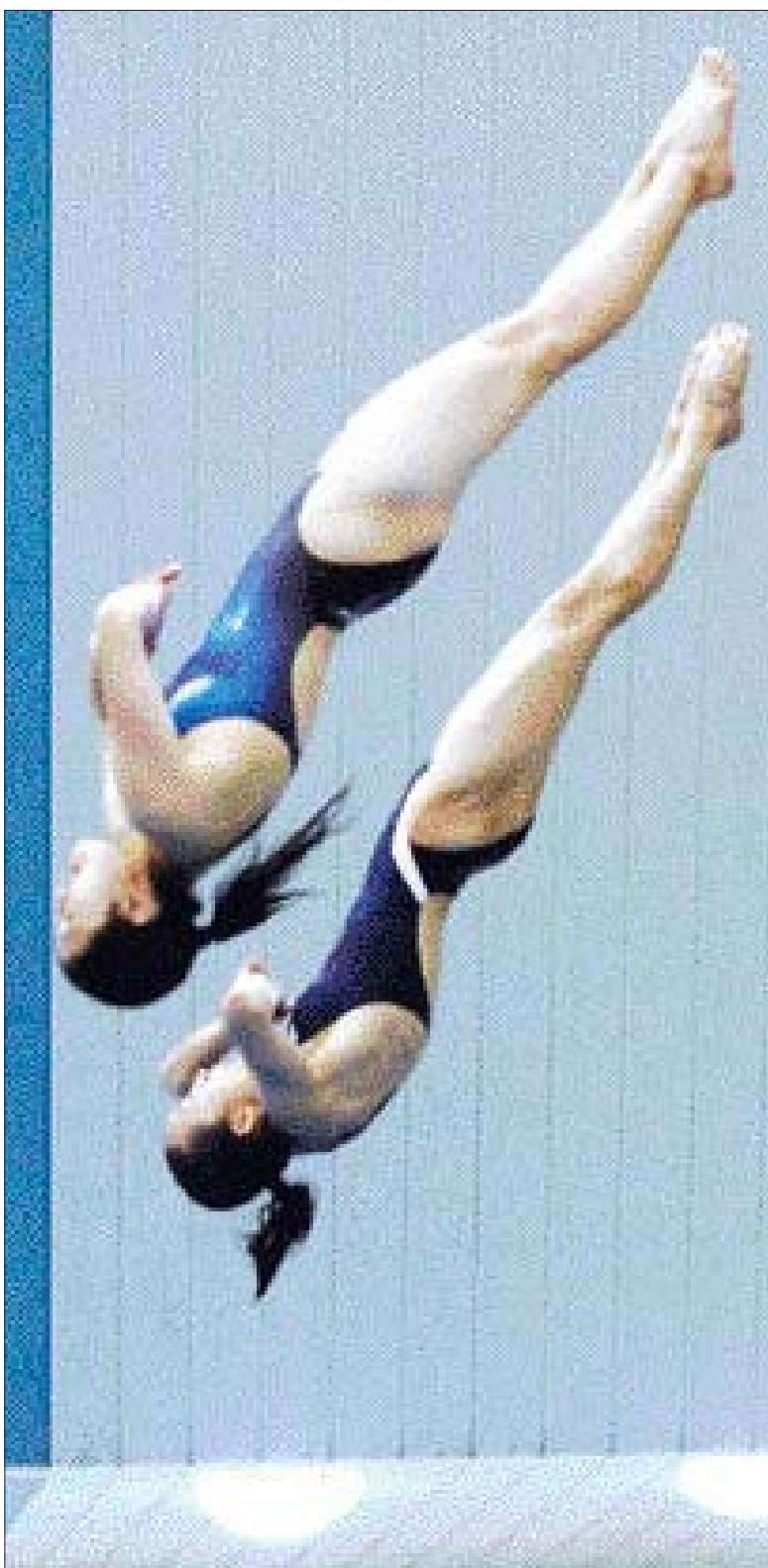




# ‘금을 향하여’ 더 빨리... 더 멀리... 더 높이...



**파란하늘 아래 힘찬 도약** 11일 광주월드컵경기장 육상장에서 열린 남자 허들 110m에 출전한 선수들이 허들을 힘차게 뛰어넘고 있다. 광주체전은 당초 예보와는 달리 연일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아래 경기하기에 최적의 날씨를 보이고 있다.



**돌고래처럼** 지난 10일 광주 염주수영장에서 열린 여자일반부 싱크로 다이빙 10m 결승에서 부산대표 조아라(위)와 황인화가 멋진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.

### 불꽃튀는 열전 승리의 땀방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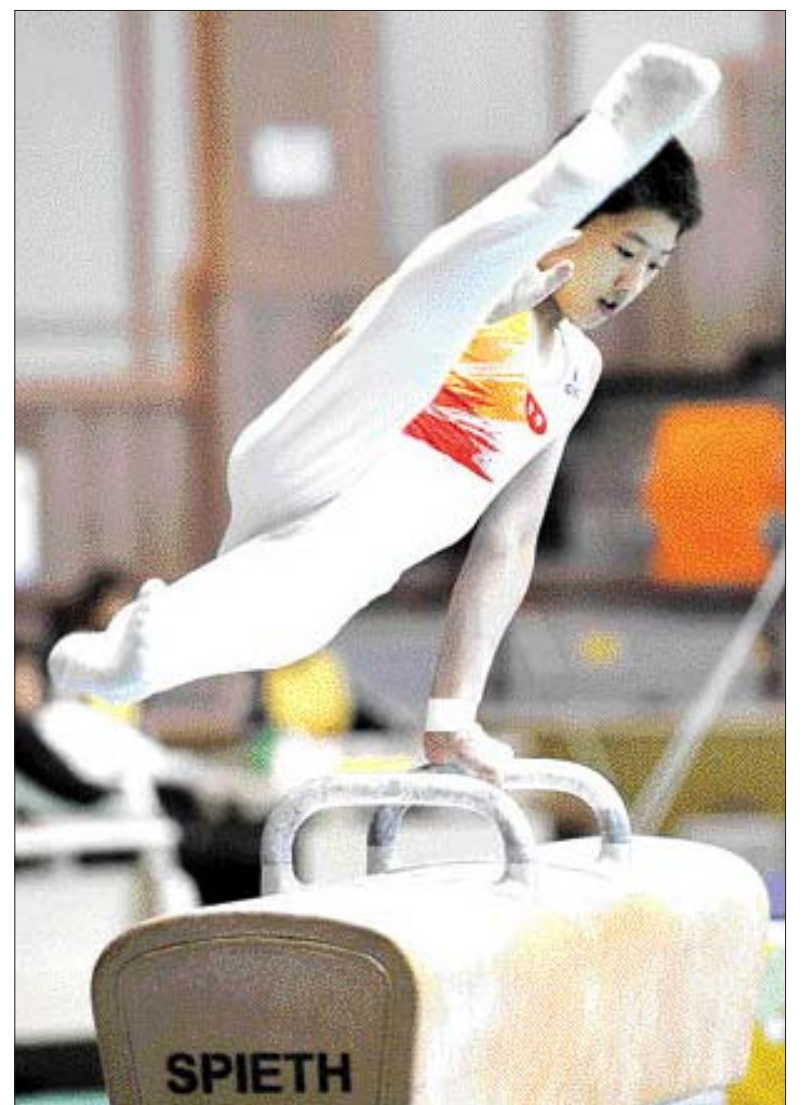
꿈도 함께! 전진도 함께! 영광도 함께!라는 주제로 지난 8일 개막한 제 88회 전국체육대회가 중반을 넘어섰다. 모두 41개 종목이 열리는 이번 대회에선 각 경기장마다 내 고장의 명예를 걸고 메달 경쟁이 한창이다. 참가 선수만도 2만 5천여명에 이른다. 선수들의 땀방울을 화보에 담았다.  
/나명주·최현배 기자mjna@kwangju.co.k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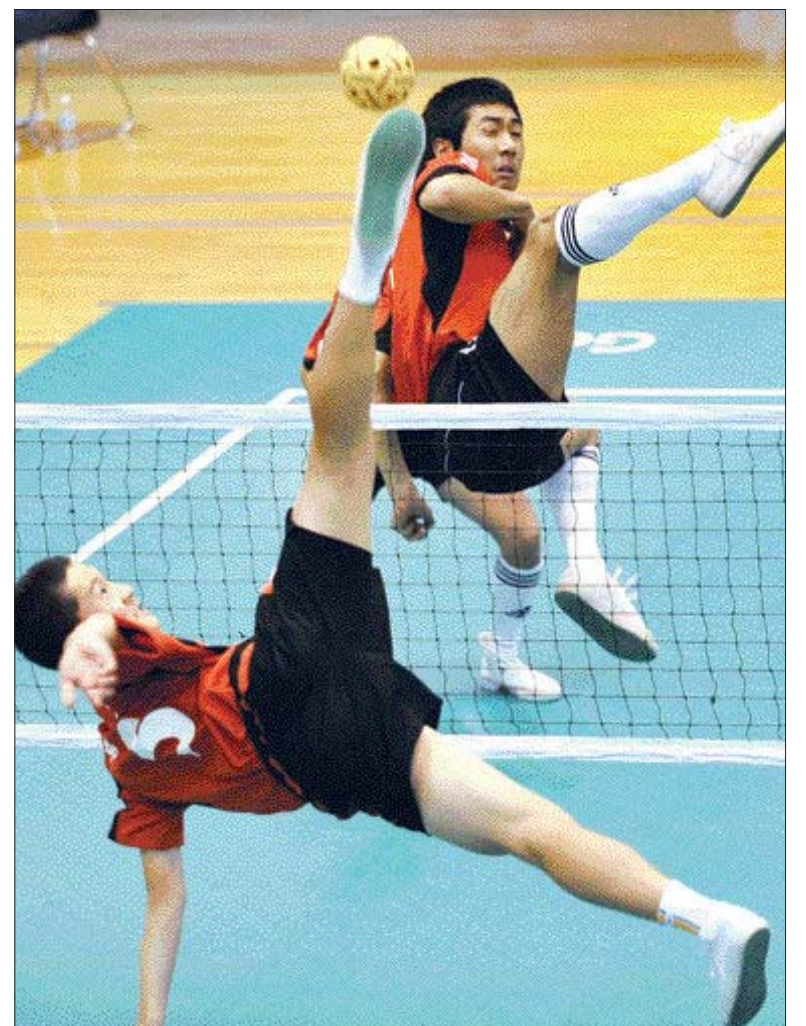
**“아이쿠!”** 11일 광주월드컵경기장 육상장에서 열린 여고부 100m결승에서 1위(12초 24)로 골인한 오수경(충남)이 결승선 통과 후 발을 헛디더 넘어지고 있다.



**“응원상 없나요?”** 지난 10일 고려고체육관에서 열린 세팍타크로 경기에서 구림공고 학생들이 모교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다.



**“멋지죠?”** 11일 호남대체육관에서 열린 남고부 체조 안마 결승에서 나현웅(광주)이 안정된 자세로 기술을 펼치고 있다.



**누가 이겼을까** 지난 10일 고려고체육관에서 열린 남고부 세팍타크로 영암 구림공고와 강원 횡성고의 경기에서 구림공고의 김창주(뒤쪽)가 횡성고의 공격을 블로킹하고 있다.



**인라인롤러 역주** 11일 수원지구시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인라인롤러 남고부 스피드10000m제외+포인트 경기에 참가한 각 시·도 대표들이 역주하고 있다.